

‘의향 장흥’, 친일잔재 청산 속도낸다

6명으로 구성된 TF단, 한달간 홍보·접수 돌입 7월부터 두달간 전수 조사 후 9월부터 후속조치

장흥군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조직한 TF단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2020년 해동사 방문의 해'를 선포한 장흥군은 지역 내 남아 있는 친일잔재를 조사해 이를 바로 잡기로 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해동사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의향 장흥' 면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탄생한 '장흥군 친일잔재 청산 TF단'은 기획홍보실장을 총괄단장으로 민간단원 2명과 행정단원 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8일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친일잔재 청산 방향과 조사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첫 논의를 가

졌다. 조사 범위는 일제 강점기 행정 구역 명칭, 친일관련 기록물, 건축물, 도로명·지명 변경사항, 문화유산, 문화재 등이다. TF단은 6월 1일부터 한 달간 1단계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한 홍보와 자료 접수에 돌입한다. 지역민이 알고 있는 친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신고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자료는 사안별로 분류하고, 자료 양에 따라 자체 추진 또는 용역 병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진위를 가린다.

자체 추진과 용역을 병행해 분류하고,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진위 여부를 가린다. 2단계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친일 잔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9월부터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청산 방법을 결정하고, 존폐 여부, 안내판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정중순 군수는 "장흥군은 역사적으로 항일투쟁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의병을 배출한 의향의 고장"이라며, "지역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해 바른 역사와 문화 위에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편백숲 산림욕장 개장

의신면 사천리 일원 30ha

진도군은 최근 의신면 사천리 일원 30ha의 편백숲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국비 15억원이 투입된 울림산림욕장은 약 2km에 걸쳐 일반 보행자 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이 숲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했다. 또 기존 유아숲과 연계해 트리하우스, 암벽등반, 모래밭 체험, 그물다리 등 놀이시설을 추가해 아동들이 자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편백숲 주변에는 금계국, 작약, 송엽국 등 각종 야생화를 식재해 피톤치드를 통한 힐링효과를 물론 눈으로 즐기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인근 오토캠핑장, 물놀이장과 함께 울림산림조성공원 일대를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조성하겠다"며 "진도군 자연 휴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가고 싶은 섬 가우도 '복합წყ수공원' 개장

수려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힐링 낚시터

코로나19 대응 방침이 생활방역 체계인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됨에 따라 강진군은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을 6월 1일부터 개장했다. 수려한 자연경관에 계절에 따라 감성돔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천혜의 낚시터인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은 해마다 낚시를 즐기는 1천여 명의 강태공들이 찾

아 휴일이면 줄을 서서 대기할 만큼 인기가 높다. 군은 6월 1일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개장에 맞춰 기간 사전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실시했으며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다. 복합낚시공원은 가우도 마을

회에 위탁해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가우도 내에서는 복합낚시공원에서만 낚시가 가능하다.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동와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다. 1일 사용료는 성인 1만 원, 청소년 5천 원이다. 낚시 초보자를 위한 현장 낚시 지도와 낚시 장비대여, 미끼 판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 찾아가는 농촌 일손돕기 실시

이달 말까지 2백여명 참여

강진군 공무원들이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애대우던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며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군은 농산물 가격하락,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위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군 산하 공무원 2백여 명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한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고령농, 투병 중인 농가 등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14개 농가를 중심으로 일손을 지원해 적기 영농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칠량면에서 진행된 마을 순회 작업에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와 칠량면 직원 20명이 함께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청산도 다랭이 논은 몇 배미나 될까?”

완도군, 논배미 수맞이기 이벤트...첫 번째 정답자 나와

완도 청산도 다랭이 논은 몇 배미나 될까? 귀신도 모른다는 청산도 다랭이 논 배미(구획된 논을 세는 단위) 숫자 맞추기에 첫 번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가 나왔다. 처음으로 정답을 맞힌 관광객은 김○○ 씨는 “인천에서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청산도를 방문해 가족 5명이 이벤트에 도전했었는데, 정답을 맞춰 완도군청에서 기념품을 보내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씨 가족은 “유채꽃이 만발할 때 청산도를 방문하고 싶었으나 관광객 입도 금지로 인해 5월에 방문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가 취소되어 아쉽지만 청보리밭과 범바위 등 볼거리는 물론이고 이런 소소한 이벤트로 즐길 거리까지 있어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고 밝혔다. 완도군 이송현 관광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청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정답을 못 맞히더라도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강사 양성

영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송영희)는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4개국 8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한 다문화이해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다문화이해 강사 양성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역사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출신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

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문화 이해 강사 양성 교육 수료로 배출된 결혼이주여성들은 향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 찾아가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